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청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불교계 유치원 260곳서 132곳으로 반감

## 어린이 포교 '뒷걸음질'

시설 대부분이 부산·경남에 밀집  
 서울 경기지역은 25곳 불과

### 조계종 포교원 조사

260여개에 달했던 불교계 유치원이 132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포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29일 발표한 '불교계 유치원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찰이 운영하거나 사찰별

인, 불교계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당초 조사대상 266곳의 절반 가량인 132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국·사립 유치원 8,292개(교육인적자원부 집계) 중 1.6%로, 개신교 3.7%(303개), 가톨릭 2.3%(192개)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처럼 불교계 유치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입학 아동 감소로

인한 폐원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많은 유치원들이 어린이집 형식의 유아보육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종단이 아닌 재가자가 운영하는 경우 개인적 이유로 유치원을 내놓은 것도 한 이유다. 결국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불교계 유치원이 무관심과 정책 부재 속에 문을 닫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인구의 45% 가량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 내 불교계 유치원의 수는 25개 밖에 되지 않아 지역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어린이단체들이 부산, 경남지역에 주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대부분의 불교 유아교육지도자들은 △종단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확대 △불교유아교육협회의 조직력 강화 △지역별 인구비율에 맞는 유치원 설립 등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정인스님은 "불교계는 체계적인 유아교육체제 확립은 물론 유아교육 전문 인력 양성도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 유치원별 연대성과 활동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제6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5백여 3국 불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9일 교토 청수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청수사에서 진행된 세계평화 합동기도회 모습. **관련기사 3면**

## 조계종, '북한산' 3단계 해법 제시

- ① 선행조건 이행
- ② 공론조사 객관성 담보
- ③ 노선설계 검토위 구성

조계종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론조사 제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 기본인정임을 밝히며 사회적 합의절차로서 3단계 해결절차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0월 27일 문화관광부 종무실로 보낸 회신공문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환경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통노선에 관한 일방적 주장만 있고 비교노선에 관한 합리적 비교평가가 자료가 없다"며 "공정한 토론과 공론에 불리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관통노선과 견주어 비교 가능한 비교(대안)노선을 시민환경단체가 주도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합의절차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선행조건(1단계)과 실시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2단계), 실시 후 노선 선정을 위한 설계검토위원회 구성(3단계)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호남: (062)373-8813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690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우리에게 '가야채형 24시간'으로 알려진 월드비전, 한국전쟁 때 설립돼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독교 NGO다. 이 단체에서는 '사랑의 빵'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금통을 제작해 기독교 가정이나 상가, 학교 또는 은행 등에 비치한 뒤 모은 돈으로 국내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한해

2억원 가량을 모은다고 한다. 불교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회,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통일돼지저금통(02-587-8746)'을 키우고 있다.

도 이 외에도 불교환경연대의 '환경저금통(02-720-1654)' 등이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의 '자비나눔의 모금함(02-2282-1100)', 서

배고픈 저금통  
 울노인복지센터의 '나눔의 복덕주(02-739-3249)',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02-385-1351)' 등 불교계 복지기관에서도 저금통을 배포하고 있다.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인 수교 30년 기념, 12월 30일 불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명단 영구복장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후 최초로 설립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갖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수: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현대불교신문

▶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일시: 2003년 12월30일(성도절)  
 -장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  
 -법주: 혜종스님(김로사 주지)  
 ● 성지순례  
 -인솔법사: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일정: 2003년 12월28일-1월7일(10박11일)  
 -코스: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루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뽀카리)  
 -특징: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부산에서 동시 출발

▶ 동참문의: (02)737-8881 ▶ 주최: 현대불교신문

# 갑신년(2004) 백두산천지해맞이 행사안내

백두산 성지 봉행위원회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갑신년 첫날 해맞이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백설로 가득한 백두산 천지에서 국내최초로 진행되는 대단위 해맞이 행사에 동참하시어,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여 참여 하신 모든 분들과 단체의 소원성취 하심을 바랍니다.



백두산 천지전경  
 <<선착순2004명>>  
 - 행사: 2004년 1월 1일 여명, 백두산 천지 해맞이  
 - 출발: 2003년 12월 29일, 30일  
 - 항공, 숙박 등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2003년 11월 30일까지 접수마감합니다.

**백두산 전통문화 행사 참가**  
 윤2월(2004. 3.21) 행사안내

매주, 매월 진행되는 백두산 내 각종 전통문화행사는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소천지, 천문봉, 두만강 등지에서 거행되며 연변, 길림지역의 백두산 관련부서와 제후항공사의 협조와 후원 아래 출발부터 귀국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성취감을 통한 환희심까지도 만끽 하실 것입니다.

\* 본회가 책임지고 성심성의를 진행하여 최상의 만족감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의 행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종단 및 단체 개인은 행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협찬: 중국남방항공한국지점 · 한국화정항공**